

고전작가들의 숨은 역량 발굴한다

거장 문인들의 기행서 · 미술평론 · 역사교양서 등 소개 활발

작가가 쓴 기행문과 역사책, 시인이 쓴 미술평론. 요즘 서점가에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책들이다. 이 책의 지은이들은,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는 작품을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작가나 시인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모습을 이 책들을 통해 보여준다. 자신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넘나들며 역량을 맘껏 발휘한다.

올해 출간된 책들만 해도 《안데르센의 지중해 기행》(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송은경, 예담), 《황홀의 순간》(라이너 마리아 릴케, 김재혁, 생각의나무), 《스탕달의 이탈리아 미술 편력》(스탕달, 강주현, 이마고), 《역사, 위대한 떨림》(D. H. 로렌스, 정종화, 민음사) 등이다.

여행, 미술, 역사 등 다양한 관심 보여줘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1998년에 출간된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요한 볼프강 폰 괴테, 박영구, 푸른숲)은 이런 책들의 대표격이다. 이 책은 19세기 말 이탈리아의 사회상과 문화수준을 괴테의 눈으로 담아낸다. 고전작가의 인문교양서임에도 많은 대중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밖에도 유명한 화가 고갱의 《타히티 기행》(남진현, 서해문집)이나 작가 로렌스의 《바다와 사르디니아》(박미선, 범우사) 등도 번역 소개됐다.

《안데르센의 지중해 기행》은 이런 기행문의 '계보'를 잇는 책이다.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남동유럽 여행 기록을 묶었다. 덴마크 코펜하겐을 출발해 이탈리아로 내려왔다가 그리스, 터키로 옮겨가고 다시 덴마크로 돌아오는 여정이 서술돼 있다. 동화작가답게 그의 여행기에는 친진함과 따뜻함이 묻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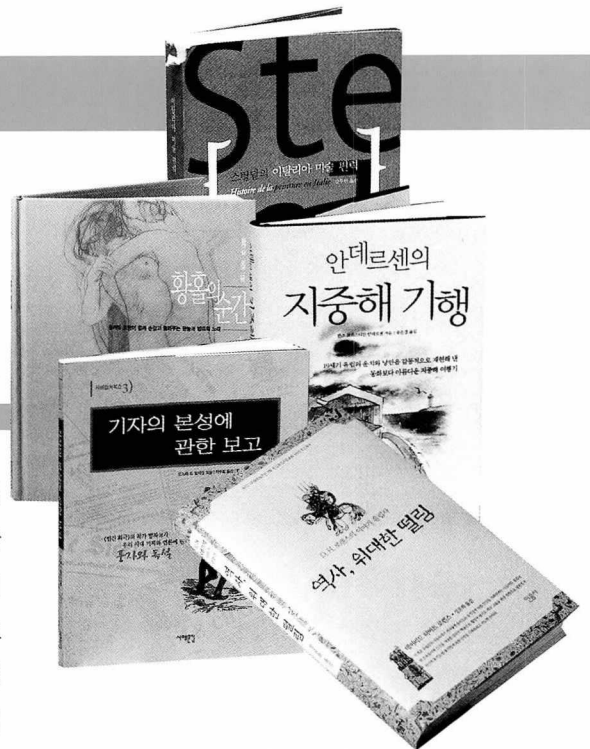
《황홀의 순간》과 《스탕달의 이탈리아 미술

편력》은 미술비평서다. 《황홀의 순간》은 독일 현대 서정시를 이끈 릴케의 시·산문과 조각의 현대화를 이끈 로맹의 누드화가 만난 책이다. 사랑, 죽음, 관능을 은유하는 로맹의 드로잉과 이를 풀어쓴 듯한 릴케의 글은 육체와 생명의 에로티시즘이라는 주제에서 점점을 이룬다. 물론 본격적인 미술비평서라고 보긴 어렵지만, 생전에 릴케가 로맹의 작품에 대해 비평활동을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둘의 만남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에로티시즘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두 사람의 예술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스탕달의 이탈리아 미술편력》은 《적과 흑》으로 유명한 작가 스탕달이 쓴 예술입문서다. 미술사적 이론이나 기법에 대해 설명하진 않지만, 그 대신 작품과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회구조와 예술 사이의 관계를 풀어간다. 조토,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예술을 살피고 자신의 예술론도 펼쳐놓는다.

《역사, 위대한 떨림》은 《채털리 부인의 사랑》의 작가 로렌스가 쓴 역사책이다. 옥스퍼드대 출판부의 의뢰를 받고 쓴 이 책은 몇몇 역사적 사건들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면서 유럽사의 큰 흐름을 그려내고 있다. 로렌스는 인류의 역사가 일정한 목표를 향해 전개된다는 기존의 실증적 역사서와는 달리 정해진 방향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무수한 인간집단의 파노라마로 해석한다. 이 점이 바로 이 책의 독특한 점이다.

1999년에 소개된 작가 발자크가 쓴 《기자의 본성에 관한 보고》(오노레 드 발자크, 지수희, 서해문집)도 저널리스트로서 발자크의 삶과 세계관을 드러내는 독특한 책이다.



독자에게 인기 끌 수 있는 주제가 대부분

이렇게 분야를 넘나드는 책들이 꾸준히 출간되는 것은 고전을 다시 새롭게 번역해 펴내는 최근의 출판 흐름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작가의 이름에 기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주저에서 벗어나고 소외돼왔던 작품이 기획되고 번역돼 나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의나무 김환기 기획부장은 “하나의 예술을 하면서 다른 예술, 역사, 철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최근 인문학의 위기를 학제간 연구로 돌파하려는 시도가 보이는데, 이 책들은 그런 면에서 좋은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책들이 대부분 기행서와 미술사책임을 염두에 둔다면 독자의 취향도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기행서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주제였다. 미술대중서 역시 지난해부터 꾸준히 독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책들이었다.

민음사 신동해씨는 “작가의 소외된 작품이나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작품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좋은 작품을 고르기보다는 아직도 독자의 취향을 고려해 책을 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책들을 통해 서로 다른 분야를 넘나들며 전인적 인식을 보여주는 더 좋은 책들이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장근 기자